

## 7. 청파동 시절 (1954~1957)

1954년(33세) 1월 20일 가곡집 『다윗의 노래』(한국 현대음악학회)를 출판하였는데, 이 가곡집에는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시12편), 「여호와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시15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시23편),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시30편), 「피난처 있으니」(시46편), 모두 시편을 가사로 한 5곡의 성가곡을 수록하였다. 이 가곡집 후기에서 나운영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952년 12월에 출판된 가곡집 「아흔아홉양」이 황성수 선생님의 소개로 의외로 불란서 작곡계의 거성 <O. Messiaen> 교수에게 인정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가곡집은 모두가 1953년 피난 중 부산에서 작곡된 것뿐입니다. 그중 46편은 유경손 독창회 때에 초연되었고 12, 15, 23편은 정달빈 목사님의 초청에 의하여 해군본부교회에서, 그리고 30편은 한국 교회음악협회 음악예배 때에 역시 그에 의하여 초연되었습니다.

이 가곡집은 모두가 교회음악으로서 복음 전도를 위한 감상용으로 작곡된 것이므로 그리 새로운 스타일을 취하지는 못하였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되도록 자유스러운 수법을 활용하여 보았습니다. 이어 년내로 제3작곡집 「현대 가곡집」을 무조 내지 12음기법으로 작곡 출판할 계획이오니 아울러 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략)

2월 12일 『표준음악통론』 출판 기념회를 열었고, 2월 15일부터 시작하여 12월 10일까지 현대음악 감상회를 개최하였다.

3월 1일 전국 문화단체 총 연합회 주최로 시공관에서 개최한 <삼일절 기념 음악연주회>에서 나운영은 「첼로 소나타」(Cello Sonata No.1)를 김재홍(Cello)과 정진우(Piano)의 연주로 발표하였고, 피아노 소품 「카프리스 제1번」(Caprice No.1)을 정진우(Piano)의 연주로 발표하였다.<sup>58)</sup>

이 음악회에서는 채동선의 『조국』 중에서 합창과 「모란」, 흥난과 「옛동산에 올라」, 김성태의 「이별의 노래」와 「동심초」, 김대현의 가



58) 「카프리스 제1번」은 나운영 작품목록에도 없고, 악보가 남아 있지도 않다.

극 『콩쥐 팥쥐』 중에서 「임 향한 일편단심」, 김동진 가극 『심청전』 중에서 「이별의 노래」가 함께 연주되었으며, 제2부로 성경린의 지휘로 국립국악원과 양악부 반주자(이영옥, 정진우, 김영애, 정재동)가 함께 하여 김기수(金琪洙)의 「회서양」(會瑞陽·돌아온 서울)이 연주되었다.

3월 초에 칸타타 「만수무강」(박종화 시)을 작곡하여 26일 발표하였는데, 이 원보原譜는 1968년 6월 6일 소각되었다.

4월 1일 **이화여자대학교를 사임하고 덕성여자대학 음악학부장 취임하여 한국 최초의 국악과를 창설**하였는데 그 모집 안내의 취지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양악이론의 한국적 섭취와 국악(아악, 당악, 향악, 속악)에 있어서의 민족적 요소의 발견—이것이 기반이 되어 한걸음 더 나아가 세계성을 띤 한국민족음악이 창조되어야 할 것을 우리 민족이 다같이 갈망하고 있는 이때 이성스러운 과업을 해결코저 본 대학 음악과에서는 국악부와 양악부를 두어 국악과 양악의 이론 및 실기를 겸하여 수련시키는 한국최초의 특색 있는 음악과를 창설하는 바이다.

5월 1일 **이화여자대학교 시간강사**를 맡았고, 5월 25일 ~ 6월 18일, 6월 22일 ~ 7월 16일 두 번에 걸쳐 을지로 입구에 위치한 여충회관 내 희망원에서 한국현대음악학회 주최, 덕성여자대학 음악학부 후원으로 〈작곡학 강좌〉를 개최하였는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6시에 화성학, 악식론, 대위법, 작곡법을 강의하였다.



7월 16일부터 1955년 4월 29일까지 〈베토벤 교향곡 전곡 감상회〉를 개최하였다.

8월 30일 나운영이 주동이 되어 충무로 1가 향초香初다방에서 처음으로 <제13회 기일 기념 흥난파선생 추도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방명록에 기재된 내용을 공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성진: 재인박명이라더니 8·15해방 후까지 사셨더라면... 비행기에 안착남, 자전거에 엄복동, 음악에는 흥난파가 제일 유명했다.

독고 선: 그는 선각자, 선구자요. 우리 민족의 은인이다. 고인의 장례식은 새문안교회에서 거행되었다. 그는 시간을 값있게 쓴 분이다.

이종태: 선생은 총독부에서 시키는 일을 제일 싫어했다.

이영세: 일을 착수하던 끝에 협력자가 나서면 그에게 맡기고 자신은 다른 일을 시작하셨다.

신봉조: 바이올린을 선생에게 배웠는데 신경질이 대단하신 분이였다. 우리 모두 기념사업회의 발기인이 되자.

윤석중: 종로 2가 덕원빌딩 3층에 연악회가 있었다. 필요성 때문에 동요 100곡을 짓기로 결심하셨는데 하도 급해서 더러는 멜로디를 먼저 쓰시고 나중에 나에게 가사를 부탁하셔서 맞춰 넣었다.

이홍렬: 경성보육학교 교수 취임 환영회 때에 처음 뵈었는데 내 작곡집을 보시고 격려해 주셨다. <성서 Trio>를 조직해서 월, 목마다 정기적으로 연습하여 Haydn, Mozart, Beethoven 곡을 방송했는데 이것이 발전되어 경성방송관현악단이 되었다.

현철: 나는 한성 음악강습소 제1회 졸업생인데 한성 음악강습소와 조선 정악 전습소가 합병되었고 고인은 제2회와 제3회 졸업생이다.

이간구: 좀 더 음악인이 많이 참석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선생이 작고하신 후 이것이 최초의 추도회가 아닌가 싶다. 추도음악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김성태: 양악 초창기의 선각자이며 경성 방송관현악단 제 1회 방송 때에 미완성교향곡(Schubert)을 지휘하셨다.

이상춘: 아무리 생활이 곤란하더라도 빨리 출세할 생각은 말라. 레코드 가수가 될 생각은 말라고 말씀하셨다.

윤이상: 오늘날 신 한국음악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 공로는 선생에게 있을 것이다. 동요 백곡집은 전곡이 주옥과 같으며 민족적 정서(우리의 흙 냄새)와 일제에 반항하는 애수가 들어 있다. 우리는 이 유산을 계승해야 할 것이고 이것을 음악적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족>-좌중에서 한 사람이 나운영이 왜 이런 모임을 주도했는지를 따짐-

나운영: 나는 선생을 동요 작곡가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선생은 만능이다. 언제나 일하는 사람은 욕을 먹는 법이고, 남을 욕하는 자보다는 욕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음악가협회가 있는데 왜 내가 나서서 이 모임을 가졌느냐 하면 아무도 추도회를 안 열기에 내가 나선 것뿐이다. 난파기념사업회가 속히 조직되고 난파음악상도 제정했으면 좋겠다.

나운영은 이후 몇 해 동안 계속해서 추도회를 개최하다가 1963년에 난파기념사업회가 발족하게 되어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나운영은 난파기념사업회의 이사인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나운영이 홍난파를 평생 존경해 왔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물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나운영의 서재 한쪽 벽에 언제나 걸려 있던 액자이다. 오선지 위에 자신이 존경하는 음악가들의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걸어 둔 것인데, 보통 액자와 달리 약간 비틀게 배치한 것이 특이하다.



나운영의 현대적 감각이 느껴지는 이 액자에는 우리나라 음악가로서 김인식과 홍난파의 사진이 있고, 외국 음악가로는 현대 작곡가인 메시앙, 스트라빈스키, 힌데미트, 쉐베르크, 바르톡의 사진이 들어 있다.

내친 김에 나운영의 책상에 항상 붙여 놓은 메모까지 소개 한다면,

‘남보다 우수한 작품을 쓰는 것보다는 남과 다른 작품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 John Cage

나운영은 언제나 이 액자와 메모를 바라보며 자신의 작품세계를 구성해 나갔다.



8월 국민개창운동추진회가 발족되었는데 그 취지문<sup>59)</sup>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라를 좀먹는 왜색 유행가와 재즈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건전한 국민가요의 개창으로 조국의 통일과 재건을 취하는 구국운동을 전개코저 급변 국민개창운동추진회가 조직되어 회장에 배민수 씨가 사무장에 안병철 씨가 취임하고 8·15를 계기로 국민가요의 작사와 작곡을 전국적으로 공모하여 제정하는 한편 지역별로 가창지도대를 파견하여 적극보급에 임하리라 한다.

나운영은 해방 이후 이 땅에 퇴폐적인 일본색 국산유행가가 자리 잡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런 일이 이 이상 더 계속된다면 조국과 이 민족의 장래가 가히 우려되겠기에...<sup>60)</sup>

나운영은 순수음악만이 음악이라고 고집하는 딱 막힌 음악가는 아니었다. 재즈나 샹송, 간쑤네 등은

59) “국민개창운동추진회 신발족(新發足)” 동아일보, 1954년 8월 29일자.

60) 수상집 1집 113쪽

물론이고 팝송과 같은 경음악도 배척하지 않았다. 다만 일제 치하의 혹독한 시련을 겪고도 일제가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퍼뜨린 일본식 유행가에 물들어가는 우리 민족정신의 몰락을 걱정한 것이다. 전란 이후 부서진 건물만큼이나 쇠락해진 우리 민족정신을 퇴폐적인 유행가가 아니라 밝고 힘찬 국민가요 또는 신민요를 통해 회복해 나가기를 원했던 것이다.

나운영은 국민개창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젊은이의 노래」(김광수, 1954), 「새나라 건설」(이은상, 1955), 「나라 위해 이 내 몸 바치리」(김광섭, 1958), 「눈 온 날에」(김용호, 1958), 「고개를 넘어가자」(이은상, 1958), 「건설의 새 일군」(이은상, 1958), 「학도의 노래」(최현배, 1958), 「나라사랑」(최현배, 1958), 「추구월풍년」(고희준 시, 1958), 「키우자 우리나라」(김정현) 등을 작곡하였다.

**1955년**(34세) 1월 **한국 교회음악협회 부회장 겸 창작부장에 취임**하였고, 월간 『신태양』 1월호에 논문 「고민하는 한국 악단의 타개책」을 발표하여 논문 「히세의 악단」에 이어 2번째로 필화사건筆禍事件을 겪게 된다. 그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휴강 투성이의 국립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문교당국이 방입하는 까닭은...?」

「한국음악가협회는 무엇을 하였는가?」(중략)

휴강 투성이의 국립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좀 더 충실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여론을 당국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생들이 잘못 배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배우는 것이 나을지는 모르나 그렇다면 구태여 대학에 다닐 필요가 없지 않은가? 별로 잘 배우지도 못한 신인음악가들이 배출되어 각 직장을 채우고 있는 한 우리 악단은 병 들고 말 것이다. 좀 더 권위 있는 교수를 망라해야 할 것이며 전공과목 보다도 기초교육에 치중해 주는 것이 장래를 위하여 유익한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중략)

한국음악가협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과당성(派黨性)으로 말미암아 별로 사업을 하지 못했으며 또한 이 속에서는 일을 할 수 없어 이탈하여 각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협회, 교육음악협회, 뮤지컬클럽, 연주자협회 등에 대하여 적대시할 수 있을 것인가? (후략)

이 기사가 나가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이 발칵 뒤집혔다. 이번에는 신문이나 잡지에 반박 기사를 실는 정도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단 대표 4명과 동창회 대표 13명, 모두 17명이 아예 나운영의 집으로 항의 방문하러 몰려온 것이다. 유경손은 사태가 보통 험악한 것이 아니므로 사람을 시켜 파출소에 미리 연락을 해 두고, 무리를 진정시키며 나운영을 불러내었다. 나운영은 집 앞 교회마당으로 나와 자신을 빙 둘러싼 무리들을 한번 쳐다본 후 땅바닥에 앉더니 조용히 안경을 벗어 옆에 내려놓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돌부처처럼 앉아있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이므로 변명할 것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몰려 온 교수들이 다 선배이자 동료였으므로 그들의 분노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운영은 갖은 위협을 당한 끝에 결국 사과문 2통과 계약서 1통을 작성한다. 하지만 이 사과문과 계약서도 나운영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작성한 다음 나운영에게 날인을 강요한 것이었는데, 계약서란 금후 해명이나 비판치 않을 것을 계약하라고 한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나운영은 약속대로 이 사실을 주위에 알리고 싶지 않았으나 소문을 막을 길은 없어 문총文總에서 중앙교육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건설적인 비판에 대해 언론을 통해 반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폭행한 것은 비판의 자유를 구속한 것이므로 의법 처단해 달라는 진정을 하는 일도 있었다.<sup>6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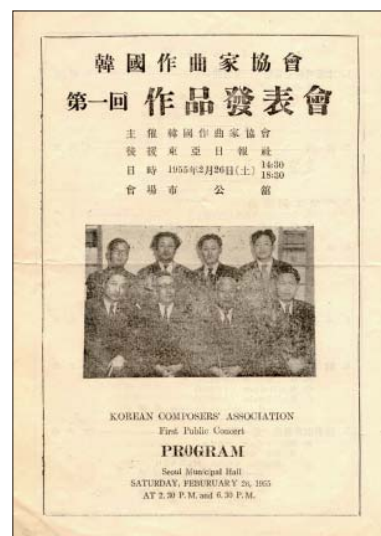
나운영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음악계의 발전을 위해 너무도 무모한 발언을 하였지만, 이런 자극들이 도움이 되어 오늘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이 우뚝 선 것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본다.

1월 22일 『수수께끼』를 작곡하였는데, 이 곡은 「피아노를 위한 6개의 전주곡」(6 Preludes for Piano) 중의 1곡으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12음기법에 의한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이다.<sup>62)</sup> 1월 25일 「피아노를 위한 6개의 전주곡」 전곡 작곡을 완료하였다.

2월 19일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부 제1강의실에서 대한국악학회 주최 제34회 연구발표회에서 「한국적 선율의 화성화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2월 24일 피아노 곡 「12음 기법에 의한 주제와 변주곡」(Theme & Variations Written in the 12 tone Technique)을 작곡하여 26일 한국 작곡가 협회가 주최한 <제1회 작품 발표회>에서 정진우의 피아노로 발표하였는데, 시공관에서 열린 이 음악회에서 이상근, 김대현, 김동진, 김세형, 윤용하, 이흥렬, 윤이상의 작품이 함께 연주되었다.

4월 1일 덕성여자대학을 사임하고 연희대학교 신과대학 종교음악과 조교수에 취임하였다.



같은 날 「피아노 3중주곡 제1번」(Piano Trio No.1 “Written in the 12 Tone Technique”)을 작곡하였는데, 이 곡은 12음기법으로 전3악장을 작곡했고, 특히 현악기에 있어서 글리산도(Glissando)를 애용했으며, 제3악장에서 민요조의 음렬을 사용함으로써 12음기법으로도 한국적인 것을 표출할 수 있다는

61) 서울신문 1955년 2월 12일자 기사

62)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16쪽

신념을 갖게 하였다. 나운영은 이 작품이 토착화와 현대화의 첫 시도였다고 말하였다.<sup>63)</sup>



4월 5일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산조」(Sanjo for Violin & Piano)를 작곡했는데, 이 곡은 처음에 바이올린 소나타로 작곡했다가 제목을 바꾼 것이다. 중중모리-언모리-휘모리-세산조시 장단으로 된 이 곡은 Do가 생략된 6음음계, Sol과 Fa가 생략된 5음음계, Mi와 Si가 생략된 5음음계, Fa와 Do가 생략된 5음음계를 사용했고, 부가화음, 4도화성, 특히 Violin에 있어서 완전4도 음정의 병

행법 등을 활용한 작품으로서 나운영은 토착화의 본격적 시도를 한 작품이라고 하였다.<sup>64)</sup>

4월 6일 예술가곡 「당나귀」(조병화 시)를 작곡하였고, 4월 8일 예술가곡 「꽃과 고양이」(조병화 시)를 작곡하였다.

4월 10일 한국교회음악협회가 주최한 부활절 음악예배가 영락교회에서 열렸다. 안익태 선생이 연합합창을 지휘하고 청파교회, 신일교회, 종교교회, 신당동 중앙교회, 새문안교회, 성도교회, 영락교회 성가대가 참여하여 헨델, 롯씨 등의 곡을 연주한 이 음악예배에서 나운영은 자신의 작품 『부활절 칸타타』 중에서 「골고다의 길가」(후에 골고다의 언덕길로 바꿈)와 「할렐루야」 2곡을 성남교회 성가대를 통해 발표한다.<sup>65)</sup>

우리 고유의 창 가락으로 작곡된 「골고다의 길가」가 발표되자 음악예배 도중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심지어 중간에 퇴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국악가락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속된 것이다. 성가라고 할 수 없다.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 가지고 폄하하는 사람이 많았었다.<sup>66)</sup> 나운영은 우리 마음에 흐르고 있는 가락을 통해 신앙을 전달하고 싶었을 뿐인데, 크나큰 물의를 일으킨 것이다.

나운영이 낙심하여 연주를 마치고 내려올 때 강신명 목사님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음악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소. 오늘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하시며 격려해 주셨다고 한다.<sup>67)</sup> 나운영은 이 곡을 이후로 3년 동안 계속 연주하였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반응이 좋아졌다고 한다. 같은 날 예술가곡 「구혼」(조병화 시)을 작곡하였다,

63)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16쪽

64)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16쪽

65) 한국교회음악협회 주최 ‘부활절 음악예배’ 프로그램, 1955년 4월 10일(주일) 오후 3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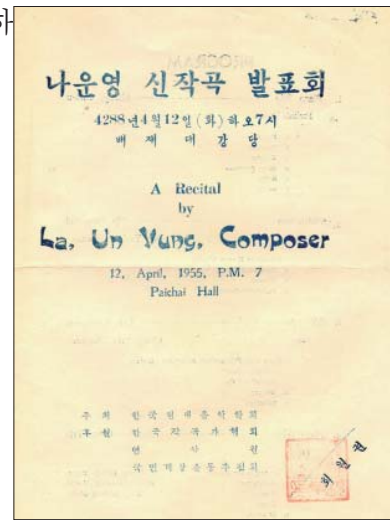
66) 1986 KBS TV ‘11시에 만납시다’ 인터뷰 내용

67) 나운영 ‘음악과 신앙으로 점철된 내 생애’ <신앙계 1977년 12월호>

4월 12일 <제2회 나운영 신작곡 발표회>를 배재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는데 그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2회 나운영 신작곡 발표회 (배재 대강당)

1. 피아노 독주            정진우(鄭鎭宇)  
6 Preludes for Piano
2. 바이올린 독주        신상철(申相徹)  
구연소(具然昭, 피아노)  
Violin Sonata-Written in Korean Rhythm
3. 엘토 독창            유경손(柳慶孫)  
조병화 시집 <인간고도人間孤鳥> 중에서  
꽃과 고양이, 당나귀, 구혼
4. 피아노 3중주        클로버 3중주단  
Trio for Piano-Written in the Twelve-Tone Technique  
정진우(鄭鎭宇), 김창환(金昌煥), 김재홍(金在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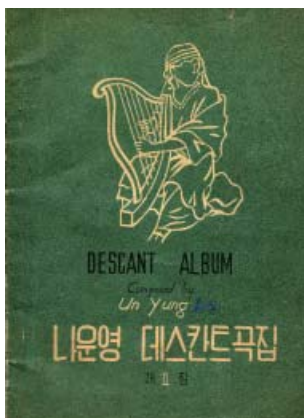


4월 21일 동화음악궁전에서 녹음실황 테이프 <나운영 신작곡 감상회>를 갖고, 4월 29일에는 1954년 7월 16일부터 시작한 <라컨느꼬레 40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베토벤 교향곡 전곡 감상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11월 22일 장남 진鍵이 출생하였다.

12월 20일 『나운영 데스칸트곡집 제1집』(대한기독교서회)을 출간하였는데, 데스칸트(Descant)란 원 멜로디 위에 작곡된 독립한 멜로디 혹은 상대 주제(Counter Theme)로서 이를테면 찬송가를 회중이 부를 때 고음역에서 그 노래를 장식하거나 적절한 대신율을 노래하는 것을 말한다. 나운영은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략) 우리가 현재 부르고 있는 합동찬송가는 모두가 서양사람들의 작품뿐이다. 그러므로 그 정서가 우리들과는 잘 맞지 않는 점이 많다. 따라서 하루바삐 우리나라 사람이 작사, 작곡한 -우리네의 생리에 맞는- 찬송가가 응당 합동찬송가에 많이 편입되어야 할 것이나 한편 서양찬송가에 되도록 한국적 내지 동양적 데스칸트를 붙여서 부르는 것도 의의가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서양찬송가가 좀 더 우리들과 가까워질 것이며 이 데스칸트로 말미암아 교인들에게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는다. (후략)



나운영은 이 제1집에서 10곡의 데스칸트를 발표하였는데, 이후로 계속 데스칸트를 작곡하여 1974년에 50곡집을 발표하고 1976년에 100곡을 채워 발표하였다.

같은 날 경북대 주최 X-mas 축하음악회 <메시아 대연주회>에서 지휘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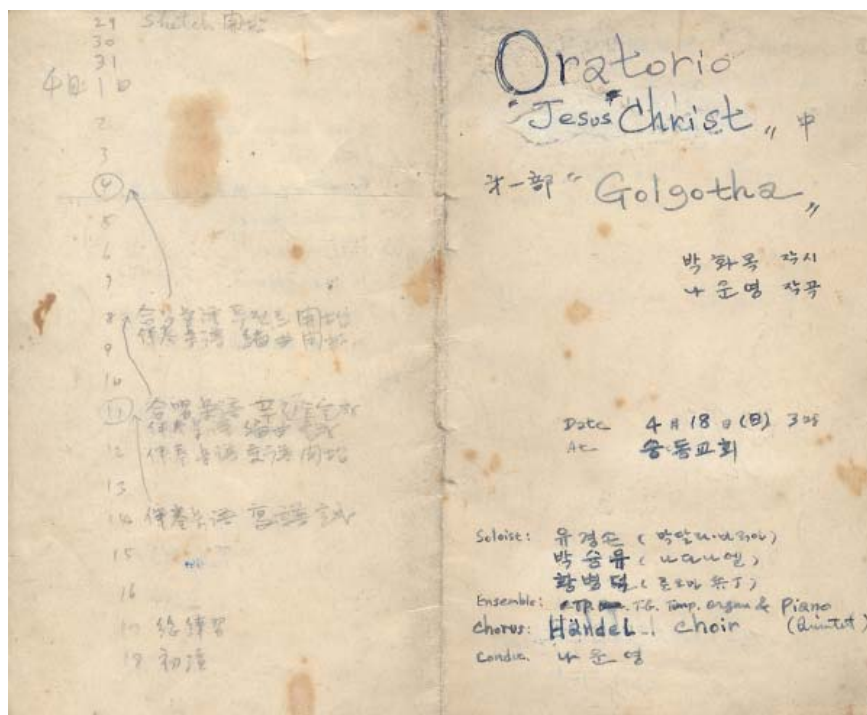
**1956년**(35세) 3월 논문 「음악교육 개혁론 10개조」를 연희신문에 발표하였다.

4월 9일 『부활절 칸타타』(Easter Cantata)(김병기 시) 전곡 작곡을 완료하였다. 작사자 김병기(金炳基)는 본명이 김시형(1919~1987)으로 시인이자 다방면으로 재주가 뛰어난 인재였다. 김병기는 서울성남교회의 집사로 함께 봉직하면서 성가대의 총무로, 테너로, 낭송가로 활약하였다. 이 『부활절 칸타타』 작품생성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성남교회 물로이계단에서 김시형과 함께]

나운영의 메모를 보면 나운영은 처음에 오라토리오 『예수 그리스도』(Oratorio "Jesus Christ")를 구상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제1부 <골고다>를 박화목 작시로 작곡하려고 계획한 것을 볼 수 있다.



메모를 보면 1954년 3월 29일 작곡 스케치(sketch)를 시작하여 4월 14일까지 반주악보를 사보하여 4월 18일 (주일) 승동교회에서 발표하려고 계획한 것을 볼 수 있다. 달력을 찾아보면 4월 18일이 주일이 되는 해는 1954년이다. 그런데 이 메모에서 의문점 세 가지가 발생한다.

첫째, 〈골고다〉의 작사자가 ‘왜 박화목인가?’이다. 박화목은 이후 12월에 작곡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작사하였다. 둘째, 메모 뒷장 왼쪽을 보면 Overture의 장면은 현재의 『부활절 칸타타』 중 제2곡 「예루살렘 입성」과 같은데, 곡의 구성은 제1곡인 「변화산상」과 같다. 셋째, 메모 뒷장 오른쪽에 있는 곡의 순서는 『부활절 칸타타』의 순서보다는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순서에 더 가깝다.

연주날짜까지 정해 놓고 구상한 오라토리오 메모인데, 그 어느 것 하나 들어맞지를 않는다. 결국 오라토리오 구상만 했다가 포기했다는 얘기인데, 좀 더 추측해 보자면,

박화목의 작시집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말미를 보면 ‘계사<sup>癸巳</sup>년 11월 17일밤’이라고 적혀 있는데, 계사년이면 1953년이다. 그렇다면 나운영은 1953년 박화목으로부터 시를 받고 좀 더 큰 규모의 오라토리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상했을 수 있다. 그런데 제1부로 구상한 〈골고다〉를 박화목이 써 주지를 않는다. 나운영은 음악적인 감각도 있고 시적인 재능도 뛰어난 김병기에게 도움을 청한다. 김병기는 〈Easter 성시가<sup>聖詩歌</sup>〉를 써 나운영에게 준다.

이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 것은 김병기의 시가 처음부터 작곡을 염두에 두고 쓴 시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병기의 시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Overture] 극적인 전주곡에 뒤이어 무가사 합창.

합창이 고조된 후 이 합창을 배경으로 시 낭송이 시작된다.

[시] 변화산상

하날 문은 열리어 소리내며 주님의 옷은 찬란한 광채에 쌓이고 헬몬산 깊은 숲은 구름에 덮였음을 - (중략)

[합창]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시] 가자 너희들 나를 따르려는 자 제마다의 십자가를 지러 저 예루살렘으로 가자 (후략)

[합창과 독창]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 지어다

위와 같이 김병기의 시는 그냥 시가 아니라 작곡가와 함께 상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1953년 11월에 박화목은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시를 쓴다. 1954년 3월 나운영은 이것을 더 확대하여 오라토리오로 작곡하려고 계획했다가 포기한다. 나운영은 김병기에게 ‘골고다’에

알맞은 시를 부탁하여 1955년 4월 김병기의 시에 곡을 붙인 『부활절 칸타타』의 2곡을 작곡하여 발표한다. 1956년 4월 『부활절 칸타타』 전5곡 작곡을 완성한다. 1956년 12월 박화목의 시에 곡을 붙인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작곡하여 발표한다.

나운영은 원래 구상했던 오라토리오를 작곡하지는 못했지만 『부활절 칸타타』와 『크리스마스 칸타타』 두 편을 이 해에 완성한 것이다.

4월 17일 ~ 5월 22일 현대음악협회 주최로 동화음악궁전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현대음악 강좌>를 개최하고 나운영이 해설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68)</sup>

- 4월 17일 Stravinsky: Symphony Psalms  
Stravinsky: Fire Bird  
Music of Mexico
- 4월 24일 Messiaen: L'Ascension  
Milhaud: Saudades do Brazil  
Gershwin: Rhapsody in Blue
- 5월 1일 Hindemith: Mathis der Maler  
Hindemith: Viola Sonata  
Hebrew Melodies
- 5월 8일 Bartok: Violin Concerto  
Bartok: Contrasts  
Debussy: Rhapsody for Orchestra and Saxophone
- 5월 15일 Berg: Violin Concerto  
Berg: Lyric Suite  
Henegger: Pacific 231
- 5월 22일 Schönberg: Survivor from Warsaw  
Schönberg: Five pieces for Orchestra  
Debussy: Afternoon of a Faun

나운영은 현대음악 강좌를 통해 우리나라에 현대음악을 소개하는데 앞장을 섰다. 당시로서는 전혀 생소한 현대음악들이 나운영에 의해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되었고, 이러한 그의 꾸준한 노력은 작곡을 전공하는 학도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 현대음악 기법에 대한 연구를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했다.

5월 11,12일 동화음악궁전에서 한국음악애호가협회 주최로 열린 <신상철 제금독주회>에서 바이올

---

68) 프로그램을 보면 for 1 time 100 Hwan, for 6 time 500 Hwan이라 적혀 있다.

린 신상철, 피아노 정순빈의 연주로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하였다.

7월 7일 인천 관현악단 결단식에서 지휘자로 취임하여 8월 27일 홍화표(洪化杓)와 함께 인천합창단을 지휘하여 나운영 편곡 「미국민요연곡」과 「한국민요연곡」 중 여러 곡을 연주하였다,

8월 16일 **국제 민속음악협의회(International Folk Music Council)의 회원**이 되었다.

8월 22일 국민가요 「통일행진곡」(김광섭 작사)의 주제를 삽입한 행진곡 「통일」을 작곡하였다.

9월 1일 나운영의 음악이론서적 중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화성학』이 민중서관에서 힘들게 출판되었다. 이 책에 실린 나운영의 후기를 보면 그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그동안 중앙여자대학 교육과, 국립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숙명여자대학 음악과, 한국신학대학, 조양보육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덕성여자대학 음악학부와 연희대학교 신과대학 종교음악과 기타 각처에서 개최된 음악강습회에서 강의한 text를 수정·증보한 것이다. 6.25 직후 이 책이 인쇄가 완료되어 제본 도중 불행히도 사변으로 인하여 완전 소실된 후 5년이 경과된 오늘 근본적으로 새로운 system에 의하여 또다시 집필하여 출판을 보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실로 이 책이 나의 대학교육생활 10년의 기념비임을 생각할 때 감개무량함을 금할 길 없다.

끝으로 이에 계속하여 자유대위법, 악식론, 작곡법 등에 관한 전문서적이 출판될 것을 미리 말해둔다.



이 책은 인쇄가 완료되어 제본을 하는 도중 6·25 사변으로 인해 완전 소실되었다가 5년이 지나 출판되었으니, 정말 힘들게 태어난 저서이다.

나운영은 출판기념회 답사에서 쾨베르크의 명언, ‘나는 학생들에게서 배웠다’를 인용하면서 이 책이 강의 교재로 만들어졌음을 언급하였고, 이어서 힌데미트의 명언, ‘훈련은 엄격하게 그러나 작품은 자유롭게’를 인용하면서 음악이론의 기초로서의 화성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내 자신의 작품을 이론적으로 해명하기 위하여 이 화성학을 저술하였다”고 말하였다.

이 책은 1958년 5월 10일 민중서관에서 수정·증보판을 재판하였고, 1979년 11월 25일 대폭 증보하여 세광출판사에서 출판하여 현재까지도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나운영은 증보판을 낼 때마다 이 책에 실린 머리말을 자주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민족음악 수립은 양악이론의 한국적 섭취와 국악의 이론적 체계화, 그리고 음악대중

화 운동 전개에 있다.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양악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인 화성학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중략)

이 책이 먼저 말한 과업 즉 민족음악 수립에 뜻을 가진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여러분의 질책을 기다려 불충분한 점은 다음 기회에 증보하고자 하오니 많은 편달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후략)



9월 나운영은 스위스가 낳은 세계적 현대작곡가인 프랑크 마르탱(Franck Martin, 1890~1974)의 66회 생일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가곡집 『아흔아홉 양』과 『다윗의 노래』에 대한 비평을 부탁하는 서신을 띄웠는데, 전혀 면식도 없는 한국의 청년 작곡가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으랴 하고 체념하고 있던 중 10월 3일자로 프랑크 마르탱로부터 뜻밖의 충격적인 회신을 받게 되었다. 그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당신의 호의와 친절한 편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 나는 서독 쾰른 국립음악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3주일에 한 번씩 갈 뿐입니다. 나는 그 곳에서 몇몇 기성 작곡가에게 개인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당신에게는 이러한 광범한 교육이 유용하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현대 음악에 대해서, 작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마 이것은 현대 작곡가에게 공통된 문제이겠지요. 그러나 당신처럼 두 문명, 두 문화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고민이 클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그러한 탐구에 있어서 직접적인 조력자가 될 수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 유럽의 오랜 음악적 전통의 말단에 있으며 고전음악 속에서 자라났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조성의 원리라든가, 다성음악이라든가, 가장 미묘한 현대화성 연구의 모든 성과를 더욱 더 앞으로 밀고 나가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탐구는 이론적인 토대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 이론적인 면은 남에게 가르칠 수도 있겠지요 - 오직 나 자신의 음악적 감수성으로써 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대부분 암중모색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나의 감수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음, 그 화성을 찾을 때까지 피아노에 붙어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경우에는 이러한 나의 연구와는 전혀 다른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민족적인 모든 것을 이제부터 찾아내야 하고 만들어내야 할 처녀지를 앞에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 서양의 전통적인 음악을 더 배우고 연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마음 놓고 출발해야 하며 당신 자신의 음악, 당신 나라의 음악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중세기의 작곡가들이 단선적(Monodic)인 여러개의 선율을 병행시키다가 마침내 화성법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당신은 당신나라의 다성음악(Polyphony)을 정복하려고 덤벼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반음계적 음악에 들어가 볼 생각이라면 참으로 당신의 감수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선(line)과 반음계적 선율을 만들어 보도록 하십시오. 다만 나는 이 길은 좀 위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당신의 민족음악으로 들어서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되기에...

당신의 작품을 검토해보니 그 선율적 요소는 대단히 독특하고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화성의 발전은 여러 가지 스타일이 혼재되어 있어 어느 때에는 classic 같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romantic 음악 같기도 하고 어떤 때

에는 modern 음악 같기도 합니다.

우리 서양음악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당신들의 본질에 맞는 것을 솔직하게 탐구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창작을 할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굴에 사는 원시인과 같이 자기 자신의 음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Try! 라는 한 말뿐입니다. 그리고 틈 나는 대로 당신이 try한 성과(작품)를 보내주십시오. 더 배우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찾으십시오. 만들어 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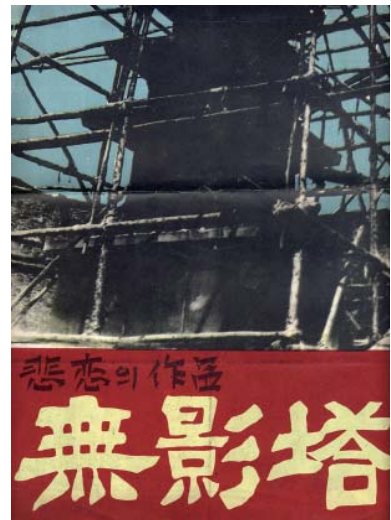
〈1956년 10월 3일 화란에서 Frank Martin〉

나운영은 스승 모로이 사부로와 홍난파 선생에 이어서 프랑크 마르탱에게 또 하나의 계시를 받았다. 민족음악 창조에 대한 마르탱의 권유는 모로이 사부로 선생이나 홍난파 선생과 결국 같은 내용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프랑크 마르탱이야말로 나운영의 허를 직접 찔러주었고 나운영의 오래된 고민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다. 타의에 의해 유학의 꿈을 접어야만 했던 나운영으로서는 항상 유학을 가야만 지금 하고 있는 음악적인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프랑크 마르탱의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유학을 가지 않고서도 자신이 지향하는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운영은 이때부터 더욱 소신껏 자신의 음악, 우리나라의 음악, 우리 민족의 음악을 쓰기 시작한다.<sup>69)</sup>

10월 1일 한국현대음악학회의 발전적 해체에 따라 **한국현대음악협회를 창립**하였다. (회장 나운영, 총무 안병철, 위원 이상근 최인찬 신동민 외)

11월 19일 영화음악 「무영탑」 작곡에 착수하여 25일 녹음을 하였다. 이 영화 「무영탑」은 신상옥 감독이 제작한 현진건 원작의 영화로 최은희, 한은진, 곽 건이 출연하였다. 영화음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소질이 없었는지 호평을 받지 못했고, 나운영은 이 곡을 작품목록에 넣지도 않았다.

같은 날 성가독창곡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시 130편)를 작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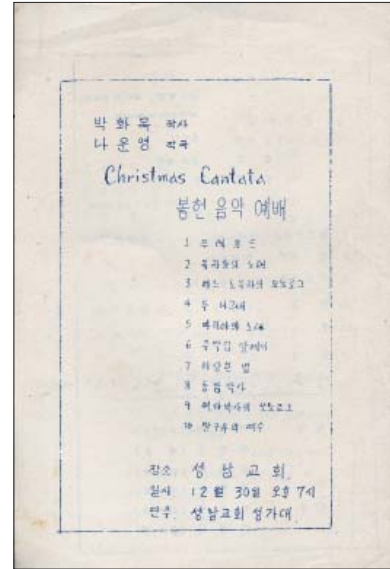
11월 23일 신홍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인천합창단 창립대연주회〉에서 마지막 합창순서로서 인천관현악단의 반주와 나운영의 지휘로 시베리우스의 「아름다운 아침」, 베르디의 「개선행진곡」, 바그너의 「노래의 전당」을 연주하였다.

69)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와 나의목자시니' 134~135쪽.

12월 16일 성가독창곡 「한 밤에 양을 치는 자」를 작곡하였다.

12월 29일 『크리스마스 칸타타』(X-mas Cantata , 박화목 시)를 작곡하였다. 너무나 시간이 촉박해서, 주님께서 도와 주셔서 작곡을 마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한 후 합창곡, 이중창곡 등 10곡을 이틀 밤을 꼬박 새워 작곡하여<sup>70)</sup> 12월 30일 성남교회에서 초연하였다. 이 곡은 민속적 선율과 장구 장단을 통해 정적인 면을 강조한 작품인데,<sup>71)</sup> 그 구성이 아주 독특해서 소개한다.

- 제1곡 「프롤로그」는 피아노 전주곡으로 시낭송과 함께 연주.
- 제2곡은 「목자들의 노래」로 혼성합창.
- 제3곡은 「어느 늙은 목자의 모놀로그」로 테너 독창.
- 제4곡은 「두 나그네」로 요셉(테너)과 마리아(소프라노)의 이중창.
- 제5곡은 「마리아의 노래」로 소프라노 독창.
- 제6곡은 「주막집 앞에서」로 요셉(테너)과 마리아(소프라노)의 이중창.
- 제7곡 「이상한 별」은 여성합창.
- 제8곡 「동방박사」는 어린이 합창.
- 제9곡 「제4박사의 모놀로그」는 바리톤 솔로.
- 제10곡 「말기유의 예수」는 혼성합창.



1957년(36세) 4월 1일 연희대학교 신과대학 종교음악과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4월 21일 서울성남교회 부활절 찬양예배에서 『부활절 칸타타』 전곡을 처음으로 연주하였다.



5월 27일 연세대학교 음악학회는 매월 제4월요일 밤8시에 정기적으로 성곡의 밤(음악감상과 신작성가발표)을 개최하였는데, 동화음악궁전에서 열린 <제1회 성곡의 밤>에서 박태준 박사가 베토벤의 「미사솔렘니스」를 해설하였고, 신작성가발표 순서에서 김정준 작사 「세상의 빛」을 발표하였다. 연세대학교 종교음악과 합창단과 함께 신갑순(삶과 꿈 대표, 나운영의 제자)이 독창을 한 것이 눈에 띈다.

나운영이 신작성가 내지는 신작찬송가를 발표하기 시작한 것이 이 성곡의 밤부터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6월 24일 동화음악궁전에서 개최한 <제2회 성곡의 밤>에서는 찬송가 「주께 드리네」의 테스칸트와 함께 신작찬송가 「손들고 나아감」(찬송가 262장 가사)과 「정의와 인

70) '음악과 신앙으로 점철된 내 생애' <신앙계> 1977.12월호

71) 안일웅 '나운영의 음악작품에 반영된 작곡기법에 대한 고찰' 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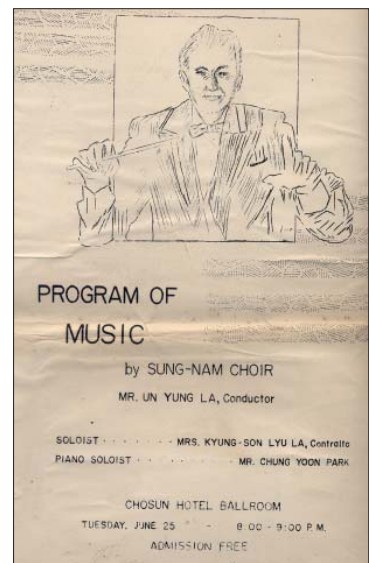
도 위하여」(찬송가 368장 가사)를 새로 작곡하여 발표하고 가창지도를 하였고, 아쉽게도 <제3회 성곡의 밤> 프로그램은 발견되지 않아 그때 발표한 곡은 알 수 없으나 11월 1일, 역시 동화음악궁전에서 개최한 <제4회 성곡의 밤>에서는 김상돈 목사가 작사한 「이제 이곳에서」<sup>72)</sup>와 김정문 알로에의 김정문이 작사한 「다시 만날 줄 누가 모르리」와 함께 찬송가 「주를 가까이함」의 테스칸트를 만들어 발표하였다.

나운영은 일 년 후 자신의 작곡발표회에서도 신작찬송가를 발표하였고, 음악감상회 해설을 할 때에도 새로 작곡한 신작찬송가 악보를 나눠주고 함께 불렀다.

6월 6일 우리나라 최초로 독일에 본부가 있던 국제 현대음악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Contemporary Music)에 가입하고 한국 지부장에 취임하였고, 대한 국악원에서 국악채보를 개시하였다.

6월 25일 조신히 호텔에서 <제3회 나운영 작품 연주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일의 연주곡목은 다음과 같다.

1. 혼성합창      성남교회 성가대  
미국민요연곡(나운영 편곡)
2. 알토 독창      유경손  
가는 길(김소월 시), 꽃과 고양이(조병화 시)
3. 피아노 독주      박정윤  
여섯 개의 피아노 전주곡 중에서
4. 혼성합창      성남교회 성가대  
부활절 칸타타(김병기 시)



7월 논문 「국악교육 개혁론 7개조」를 서울신문에 발표하였고, 7월 17일 논문 「한국적 선율의 화성화에 관한 시론」을 예술원보 6호에 발표하였다.

8월 1일 로렌스 대학의 홀링어(Paul C. Hollinger) 교수로부터 편지를 받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운영님에게

사상필 군이 갖고 온 당신의 가곡집들과 화성학 교과서를 보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한국말을 이해하지는 못하나 그 책에 나타난 악보 예들과 영문용어를 통하여 그 책의 성격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소책자 속에 그렇게 많은 재료를 포함시키신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악보예의 선택이 탁월하였고 특히 근대화성에 관한 취급에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72) 이 글 이전에 작성된 모든 작품목록에는 1960년 작곡으로 되어 있다. 나운영이 직접 작성한 작품목록에 의해 기재한 것인데, <제4회 성곡의 밤> 프로그램을 찾은 후 작곡 원보를 찾아보니 1960(?)으로 되어 있다.



가곡들은 흥미로운 동양적인 것과 서구적인 영향의 혼합을 보여주었습니다. 2권의 가곡집 중 '다윗의 노래'는 대체적으로 '아혼 아훙 양'보다 더 일관된 양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혼 아훙 양>은 때때로 동양적인 5음음계와 19세기 후반의 현저한 독미적 화성수법을 절제시키는 수법의 경향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것은 제 자신의 평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작품 속에는 대단히 우수한 피아노 피규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양식에 있어서는 매우 낭만적이지만 일반적으로 평범성을 피했었습니다.

미국의 진지한 가곡 작가들의 문제들 중의 하나는 그 작곡에 있어서 Brahms-Wagner-Franck-Tchaikovsky 식으로 되어 버리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작품구조에 있어서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여 일반 청중이 능히 노래 부를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와 같은 문제들을 비교적 잘 취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1957. 8. 1

Lawrence College Conservatory of Music

Prof. Paul C. Hollinger

9월 20일 용산구 동자동 17번지로 이주하였는데, 이 주소는 서울성남교회의 현 주소이다.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



[청과동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당시 성남교회에는 같은 구내에 한국신학대학 건물과 교수들의 사택이 있었다. 성남교회는 석조 건물로 건축하다가 1층만 지은 채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돌아온 직후였고, 한국신학대학은 수유리 넓은 땅에 새 교사를 건축하고 교수들 사택도 같이 짓게 되어 성남교회 구내 사택을 매각하게 되었다. 나운영 부부는 이 사택이 외부 사람에게 팔리면 바로 교회 울타리 안인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장구 치고 술 먹고 떠들어 댄다면 큰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집 두 채를 다 사기로 하고 정들었던 청과동 집을 팔고 동자동 17번지로 이사를 한 것이다.<sup>73)</sup>

성남교회는 나운영 부부가 이 사택을 구입하여 줌으로서 교회 뒷마당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실 이 뒷마당은 원래 도로이지만, 나운영 부부의 사택과 목사님 사택과 전도사님 사택이 함께 붙어 있었으므로



[서울성남교회 현재 모습]

73) 유경순 자서전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54-55쪽

도로 바깥에 문을 달고 교회 마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운영 부부는 후에 이 사택을 매매할 때에도 이런 사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고 성남교회에 되팔았는데, 교회 재정을 고려하여 대금도 일시불로 받지 못하고 매년 교회 형편이 닿는 대로 나누어 받았다.

현재 이 자리에는 4층 규모의 서울성남교회의 교육사회관이 새로 건축되어서 있고, 이 건물 현관 앞에는 서울성남교회 성가대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인연을 가진 나운영의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를 기념하는 「시23편 노래비」가 세워져 있다.

또 한가지. 동자동 17번지 나운영 부부의 집 앞 기둥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문패가 박혀 있었다. 바로 ‘부부 문패’이다. 나운영은 중앙고보 재학 시절에 우연히 은사이신 이상훈(李常薰, 서울대 상대 학장 역임) 선생 댁 앞을 지나가다 문패를 보고 놀란 일이 있었다. 선생님과 사모님의 이름이 나란히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sup>74)</sup> 그 당시에 부부 문패가 달렸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나운영은 이것을 두고두고 마음속에 새겼다가 동자동으로 이사 오면서 대문 옆 기둥에 이 쇠로 만들어진 ‘부부 문패’를 파 넣었다. 요즘에도 이와같은 ‘부부 문패’를 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나운영은 평소 스스로를 공처가라고 하였다. 여기서의 공처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내를 두려워하는 공처가(恐妻家)가 아니다. 나운영이 말하는 공처가(恭妻家)란 공경할 공, 즉 아내를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공처가이다. 나운영이 이름 그대로 ‘나’만 ‘운영’하며 음악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부인 유경손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지 덕분이었으므로 그 스스로 말한 대로 애처가(愛妻家)라기보다 공처가(恭妻家)가 맞을 것이다.

혈액형에 따른 성격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AB형의 나운영이 B형의 유경손을 만난 것은 나운영에게는 진정 행운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0월 3일 대한 국악원에서 국악 채보를 착수하였고, 11월 16일 중앙국민학교 강당에서 열린 <제5회 연희음악회>에서 자신의 작품 「파라문의 분수」와 라프의 「카바티나」를 첼로 독주로 연주하였고, 「한국민요연곡」, 「미국민요연곡」과 「홍부놀부」를 연대혼성합창단을 지

74)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272~273쪽.

회하여 발표하였다.

12월 11일 중앙공보관에서 「수요 정기 현대음악강좌」를 개시하였는데 이것은 1959년 6월 24일까지 계속되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57년 12월 11일	제1회:[무조적 작곡 기법에 대하여]
12월 18일	제2회:[전자음악에 대하여]
1958년 1월 15일	제3회:[Varese와 Cage에 대하여]
1월 22일	제4회:[Jolivet에 대하여]
1월 29일	제5회:[Martinu에 대하여]
2월 5일	제6회:[Stravinsky에 대하여]
3월 19일	제7회:[Jazz에 대하여]
4월 2일	제8회:[현대음악과 Orientalism 1]
4월 9일	제9회:[현대음악과 Orientalism 2]
4월 16일	제10회:[현대음악과 고대음악]
4월 23일	제11회:[현대음악과 Orientalism 3]
4월 30일	제12회:[12음기법이란 무엇인가 1]
5월 7일	제13회:[12음기법이란 무엇인가 2]
5월 14일	제14회:[현대음악과 Orientalism 4]
5월 21일	제15회:[현대음악의 조류 미국편]
5월 28일	제16회:[현대음악의 조류 독일편]
6월 4일	제17회:[현대음악의 조류 프랑스편]
6월 11일	제18회:[현대음악의 조류 영국편]
6월 25일	제19회:[현대음악과 Orientalism 5]
7월 2일	제20회:[현대음악의 조류 소련편]
7월 9일	제21회:[현대음악과 Orientalism 6]
7월 16일	제22회:[현대음악 작곡기법 연구]
7월 23일	제23회:[세계 종교음악 순례 1]
7월 30일	제24회:[세계 종교음악 순례 2]
9월 10일	제25회:[Vaughan Williams 추도회]
9월 24일	제26회:[Martin의 작품경향에 대하여]
10월 22일	제30회:[Hovhaness의 Concerto]
1959년 4월 15일	제31회:[관현악법의 과거와 현재]
4월 22일	제32회:[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관현악법 1]
4월 29일	제33회:[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관현악법 2]
5월 6일	제34회:[비정상적 편성에 대하여]
5월 27일	제35회:[차이코프스키 연구]
6월 17일	제36회:[R. Strauss 연구]



[현대음악강좌에서 해설하는 모습]

12월 한국 교회음악협회 부회장을 사임하였다.